



마을이 품은 수많은 이야기, 제주의 가치

한라일보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전
21일부터 3월 5일까지 본사 1층 갤러리ED서

일상의 공간이기에 주민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마을의 모습. 그러나 제주의 빛이 머문 마을 곳곳은 저마다 독특한 매력을 발산한다.

그 공간 속에 숨쉬는 문화정체성을 주목하려 한 양기훈 작가는 미세한 빛의 변화를 맞이하는 마을들의 특성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차근차근 화폭에 담았다. "그림으로 등장한 시각적 요소를 통해 다시금 애환의 빛을 더욱 밝게 비출 수 있다면 좋겠다"는 기대감과 함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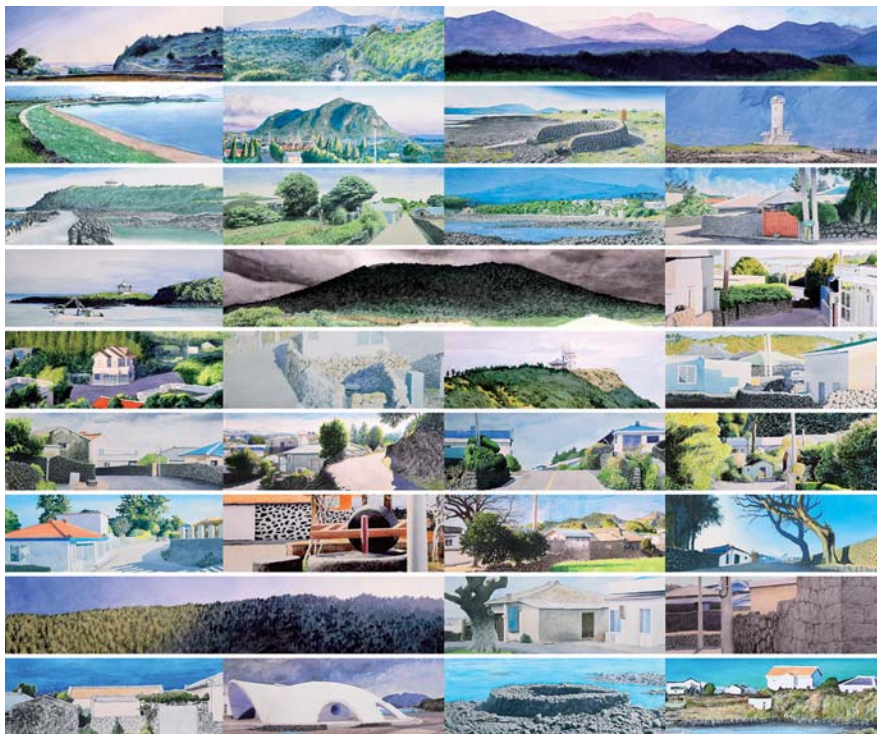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제주마을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 전이 한라일보 주최로 이달 21일부터 3월 5일까지 한라일보 1층 갤러리ED에서 열린다.

작가의 "회화적 시각으로 바라보

는 마을풍경 속에서 마을이 지닌 잠재력과 가능성을 열고자 하는 작은 소망"이 전시회의 형태로 도민들에게 선보여지는 자리기도 하다.

전시장은 한라일보가 지난해 6월부터 연재하고 있는 '양기훈의 제주마을 백리백경-가를 따라, 풍광 따라'를 통해 선보인 33개 마을의 풍경 66점이 내걸린다.

작가는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은 사실 따지고 보면 '어느 마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풍경"이라며 "조상 대대로 이웃하여 살아온 사람들의 공공자산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며 스케치를 하고 색을 칠하는 과정은 참으로 보람된 일"이라고 말한다. 무엇보다 단순히 아름다운 것에 대한 추구가 아니라 그 마을이 이룩해온 모든 삶의 역사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그리려 노력했음을 밝힌다.

"한라산 아래 펼쳐진 모든 마을 공동체의 모습은 가장 소중한 제주의 가치라고 확신하기에 그리려 했

다"는 작가는 "앞으로도 계속해 그 아름답고 소중한 가치를 화폭에 그려나가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전시 오픈행사는 개막일인 21일 오후 4시 진행된다. 오로지



'안녕·풍요 기원'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이달 20일 영등환영제 이어 3월 5일 송별제

한해 생업과 풍요를 기원하는 제주칠머리당영등굿 환영제와 송별제가 잇따른다. 이달 20일(음력 2월 1일) 제주시 수협 위판장에서 '영등환영제'가, 이어 3월 5일(음력 2월 14일)엔 제주 칠머리당(사라봉)에서 '영등송별제'가 예정돼 있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은 제주도의 여러 당굿 중 하나로 당굿은 마을의 성소인 당(堂)에 항상 있는 당신(堂神)에게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다. 특히 영등굿은 음력 2월 초하루부터 2월 보름사이에 잠깐 방문했다가 되돌아가는 영등신

을 맞이하고 돌려보내면서 한해의 생업과 풍요를 기원하는 의례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영등송별제'는 매년 음력 2월 1일에 제주로 와서 온 섬을 돌아다니며 땅과 바다 곡식의 씨앗을 뿌려주고 음력 2월 15일에 떠나는 영등신을 환송하는 자리로 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와 산지어촌계, 산지어민회, 어선조합 등 건입동 마을주민들이 함께 지켜온 제주의 문화유산이자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2009년 등재)이다. 오로지

닷새간 펼쳐진 따뜻한 온정의 손길

제주예총, 어제 튀르키예 구호물품 발송

엄마와 손을 꼭 잡고 온 아이들은 "제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인데, 동생들이 출지 않고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이불과 양말 등을 꼭꼭 눌러 담은 상자를 들고 온 80대 할머니는 "돈으로 기부하고 싶지만,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 보니 새것에 가까운 이불을 여러 번 세탁하고 선별해서 가져왔다"고 했다.

또 한 60대 여성은 "옷과 이불은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서 생리대를 사서 보냈다"고, 한 50대 남성은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 텐트와 침낭, 이동식 번기 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동식 번기는 꼭 기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도민과 제주예총 10개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튀르키예에 보낼 구호물품 모집에 나선 한국예총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제주예총)가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닷새간

만남, 따뜻한 손길을 건넨 이들의 이야기다.

이렇게 닷새간 제주예총엔 겨울 옷, 양말, 모자, 이불, 여성용 생리대, 기저귀, 텐트, 침낭, 이동식 번기, 아기 족 등 다양한 구호물품이 담긴 200여 상자와 물건이 도착했다.

제주예총은 선별작업을 거쳐 도민들이 보내온 '튀르키예에 보낼 구호물품'을 15일 화물차에 실어 보냈다.

구호물품은 배편으로 이동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다.

제주예총 김선영 회장은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은 도민들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셨다"며 "나눔이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작은 나눔이 모여 이면 큰 나눔이 된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로지

문화가 쫓지

예술꽃산양 전시실 무료대관 3D 애니메이터 아카데미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도내 3D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1일까지 매 주 화·금마다 '3D 애니메이터 아카데미'를 운영한다.

3D 애니메이터 아카데미는 Maya 프로그램을 활용해 3D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한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성웅 교수가 강의를 맡는다.

교육대상은 교육과정별 도내 CGI 분야 기업 종사자·제작자, 교육수강 및 취업을 희망하는 자 모두 가능하며 선착순 15명 내외로 모집한다.

교육비는 모두 무료며 수료자 대상 교육특전으로 도내 CGI 기업 취업연계 및 수강생과 강사간의 1:1 멘토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 참고.

문학관 창작공간 작가 모집

제주문학관은 오는 3월 15일까지 제2기 창작공간 이용 작가를 모집한다.

제2기 운영기간은 4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최대 8명의 작가가 이용할 수 있다.

문학관 창작공간은 문학작품을 집필할 수 있는 작업실로, 신춘문예나 문학 전문지 등을 통해 등단했거나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기성작가, 아직 미등단했지만 작품 발표 혹은 출판 계획이 있는 예비 작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창작공간 이용은 무료며, 휴관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 노트북은 별도로 지참해야 한다. 또 별도의 교통비·식비·체제비 등은 선정작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문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라생태숲 매력 만끽



풍경, 꽃, 곤충, 열매, 새 등 다섯 가지 테마로 한라생태숲의 사계절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사진전이 열리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생태숲은 생태숲 내 탐방안내센터에서 '사계절 테마가 살아 숨쉬는 한라생태숲'을 주제로 연중 사진전을 개최한다.

각 테마별 20점씩 총 100점이 순차적으로 전시될 예정인데, 2-3월엔 한라생태숲에서 직접 볼 수 있는 풍경을, 4-6월엔 꽃, 7-8월엔 곤충, 9-10월엔 열매, 11-12월엔 새를 마주할 수 있다.

오로지 eioh@ihalla.com

놓쳐버린 기회는 늘 아쉬움과 후회로 남습니다.
마지막 절호의 기회를 잡으세요.
리얼 클린족욕 대리점 모집

절호의 기회! 2023년 2월말까지만 주는 혜택

01 **소자본 1,500만 원**(매장을 차릴 때 들어가는 족욕기 4대와 기본세팅에 필요한 물품 비용)으로 **고소득 프랜차이즈 창업주가 될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3,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

02 **가맹비 없음**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 **업종변경을 고민하시는 분**은 매장을 방문하셔서 체험하시고 상담 받으세요.
상담전화: 010.2683.0690 리얼클린족욕기는 본사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미국의 원천기술에 기반하여 KAIST 박사님이 개발함. 특허를 출원하였고(특허출원번호: 10-2022-024009) 순수 국산 부품으로 만들어진 독소배출 족욕기임.

눈으로 볼 수 있고, 몸으로도 확 느낄 수 있습니다.

▲ 시작 초기 ▲ 30분 후 2-2

리얼클린족욕 제주점(총판)
 주소: 제주시 신성로 58(도남동 47-24) 1층
상담문의 010.2683.0690